

#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 08

2014. Vol 106



기획특집 | FMD '비상' 이슈 | 무허가 축사 심층진단 **현장르포** | 한·중FTA 중단촉구,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  
포커스 | FTA특별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추석대목 위협하는 수입쇠고기

04



03 명사초청 메시지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04-06 기획특집  
FMD '비상'

07-09 이슈  
무허가 축사 심층진단

07



10-12 현장르포  
한·중FTA 중단축구,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

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10



14-15 포커스 1  
FTA특별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16-17 포커스 2  
추석대목 위협하는 수입쇠고기

18-19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16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만병의 근원 '면역력'

22 관측&통계  
8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23 독자에세이&애독자코너

##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점 제10권 통권 제106호 발행일 2014년 8월 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리플 3길 20-1 (서초동) 커피아회관 3층 기획총무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홍보마케팅부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식량안보 차원 공감대 형성  
모두가 관심갖고 지켜내야 할

## 축산업=핵심산업 육성

한우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문표입니다.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산업은 지난해 18조 5,000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 산업이자, 농업·농촌의 미래입니다. 농업생산액의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무려 6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가공 등 연관산업 규모는 58조원, 종사인원 56만명에 달할 정도로 축산업은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한·미 FTA를 비롯한 다국적 FTA로 인한 피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증가, 무허가 축사 및 분뇨기준 강화로 인해 사육여건이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우리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19대 국회 개원 이후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나라가 된다’는 정치소신을 바탕으로 시급한 농어업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 축산업은 국민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과 한우농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FMD 발생’ 전국 긴급 차단방역 돌입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2개월만에 상실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군 돼지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해 돼지 692마리가 살처분했으며, 뒤 이어 경북 고령군 돼지농장에서도 FMD가 발생해 그 여파가 확산됐다(8월 5일 기준). 이로써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으로 FMD가 발생한 지 39개월만에 재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이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3가지 백신(혈청형 O, A, Asia 1)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으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각 지자체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FMD 발생현황

올해 FMD가 최초 발생한 돼지농가는 외부 유입인지 기존 잔존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FMD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예방접종 미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 또는 새끼돼지를 공급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MD 발병의 경우 전체 우제류에 대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상실, 수출길 막혀

2011년 4월 21일 FMD가 마지막 발생한 이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지난 5월 2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총회로부터 ‘FMD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FMD 발생으로 어렵게 이룬 청정국 지위가 2개월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지위상실로 인해 수출길도 어려워졌다. 그동안 정부와 한우업계는 중국의 고급육시장 진출을 위해 전초기지인 홍콩수출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지위국 상실로 청정국 지위 획득 시 까지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 철저한 백신접종과 예방 필요

축산농가 스스로도 철저한 예방의식만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농가는 주기적인 농장 소독과 철저한 차단 방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예찰 활동과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을 삼가야 한다.☺

## 모임 일시중단 안내(8월 5일 기준)

◆FMD 위험 진정될 때까지 아래 지역 집합교육 등 일시 중단

FMD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당초) 경북 의성군	(경북) 예천군, 안동시, 군위군, 구미시, 상주시
(추가)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 (대구) 달성군, 달서구

## FMD 전파경로

- ◆감염동물의 물집(다량의 바이러스 함유)이나 침, 유즙, 정액 및 분변으로 오염된 사료·물의 섭취를 통한 직접 접촉전파
- ◆감염지역 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등), 의복, 물, 기구 등에 의한 간접 접촉전파
- ◆오염농장의 가축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쥐, 조류, 곤충, 개, 고양이 등도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구서 및 해충 제거 필요
- ◆감염동물이 재채기나 호흡을 할 때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공기(바람)를 통해서 전파되는 공기전파



거품 섞인 침흘림, 잇몸 궤양

젓꼭지 물집



혀와 잇몸의 궤양

콧잔등 물집 및 궤양

## FMD 백신접종 프로그램(소)

백신접종시기	접종량(1회)
① 송아지: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2ml/마리
② 모든 소: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 ◆ 1두 1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축종별 적정용량 접종 및 적정크기 주사바늘 사용 준수
- ◆ 백신은 반드시 2~8℃ 냉장 보관하고, 사용 30분 전에 꺼내 실온에서 잘 흔들어서 사용
- ◆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
- ◆ 주사 시 약물을 천천히 주입하고, 주사 후 맞은 부위를 충분히 문지를 것

※ 혈청 검사에서 백신 미접종 농가로 밝혀질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구지역 감염(양성), 신고지연시 보상금 대폭 삭감, 최초 농장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단체여행객 포함)는 출국 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 FMD·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 가축사육 시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 축산농장 내·외부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을 소독하였거나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역을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 보존기간 - 기록한 날로부터 1년

가축방역일지(사람, 차량의 출입기록)를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과태료 부과기준)

## 해외 구제역 발생 현황

2013년	2014년(8.3일 기준)
<p>■ 총 11개국 95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O형 8건) (A형 18건)</li> <li>- 러시아(A형 21건)</li> <li>- 몽골 (A형 3건)</li> <li>- 이스라엘 (O형 1건)</li> <li>- 남아공(SAT1형 4건) (SAT2형 9건)</li> <li>- 짐바브웨(SAT3형 6건) (미정 3건)</li> <li>- 보츠와나(SAT2형 1건)</li> <li>- 대만(O형 3건)</li> <li>- 카자흐스탄(A형 3건)</li> <li>- 나미비아(미정 3건)</li> <li>- 리비아 (O형 12건)</li> </ul>	<p>■ 총 11개국 169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A형 2건) (O형 1건)</li> <li>- 러시아 (A형 2건) (O형 8건)</li> <li>- 몽골 (A형 14건) (O형 1건)</li> <li>- 이스라엘 (O형 2건)</li> <li>- 남아공(SAT2 22건)</li> <li>- 짐바브웨(SAT1 3건)</li> <li>- 보츠와나(SAT1 1건)</li> <li>- 북한 (O형 16건)</li> <li>- 기니(미정 2건)</li> <li>- 튀니지 (O형 114건)</li> <li>- 알제리 (미정 1건)</li> </ul>

\* 베트남, 팔레스타인 등 구제역 상재국은 미보고

\* OIE 긴급보고를 하지 않으나 OIE SEAFMD에 보고된 '14년 구제역 발생국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FMD·AI 의심축 발견 즉시 1588-9060 으로 신고합니다



# ‘무허가·미신고’ 한우농가 71.5% 추정 공청회 거쳐도 합의점 못찾아

주요쟁점-건폐율·적용대상·거리제한

2012년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무허가 축사 실태파악 전이었지만 대다수의 축사가 무허가 또는 미신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개선보다는 양성화에 초점을 맞춘 요구를 지속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생산자단체 요구사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 ◆이행강제금과 같은 사법처리 면제
-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대책 보완
-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 ◆사육제한구역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우 농가 70% 무허가·미신고 축사

2012년 환경부와 지자체가 농장 95,8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허가·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시설은 약 50%로 추정됐다. 시설 전체가 무허가·미신고인 경우는 20,531개소로 약 21.4%를 차지했으며 기존 허가·신고배출시설 중 일부를 불법 증·개축한 사례도

약 28.6%나 됐다. 또한 비가림시설 등 가설건축물이나 축사 등의 무단 증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4,715농가(23.7%), 충남 4,504농가(22.6%), 전남 4,488농가(22.5%), 경남 1,973농가(9.9%), 전북 1,938농가(9.7%), 충북 1,246농가, 강원 111농가 등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우농가의 경우 전체의 71.5%가 무허가·미신고 농가인 것으로 추정됐다.

위반 사유로는 건폐율 초과·건축허가나 신고 미이행·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이 5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환경법 등에 의한 입지 제한 구역 설치 위반도 29.5%나 됐다.

## 건폐율, 적용대상, 거리제한 등 쟁점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건폐율, 적용대상, 거리제한 등으로 생산자단체는 건폐율의 지속적인 확대 등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폐율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민원 등의 이유로 20~6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있어 농가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건폐율 상향 조정을 지속 요구, 지난해 9월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한 지자체는 전년 104개소에서 126개소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종별로 건폐율을 한시적으로나마 최소 80%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로 제한된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시설을 별도로 사용해 축산법상 축산업은 소독·방역시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축사 및 축사시설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축사를 건축물이



아닌 축사시설로 인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원칙상 지원이 어려운 가설건축물에 대해 정책 취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가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축사거리제한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행 축사거리제한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권고안에 근거해 거리

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 지역의 경우는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어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적법화가 가능토록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 생계형 농가위한 양성화와 제도 유예 절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산자단체는 지적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을 통한 사실상 폐지, 이행강제금과 같은 사법처리 면제,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대책 보완, 무허가 축사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사육제한구역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그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가 대부분 생계형이며 이미 축사가 지어져 사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농가만이라도 범법자로 양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앞으로의 발생을 예방,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무허가 축사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사례가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생계형 농가 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인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가 축사 건폐율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장 사례

시정·폐쇄 명령 내려진다는 얘기에 불안한 심경  
고령농 소득 올릴수 있는 유일한 길 - 한우 사육

50마리미만 주변농가 모두가 범법자로 전락

지난달 22일 경북 A면에서 한우 150마리를 일괄사육하고 있는 K씨를 찾았다. 그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시정 및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는 얘기에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며 운을 댔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고령인 몸으로 그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우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마릿수를 늘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축사를 증축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무허가·미신고 축사가 돼 범법자가 될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불안에 K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를 찾았지만 허가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한다. K씨의 목장은 앞으로는 하천과 인접해 있고, 뒤로는 농로와 가 까워 거리제한으로 인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K씨의 목장은 9,900㎡ 규모지만 축사를 증축하면서 건폐율도 높아졌다. 원래 하나이던 축사는 3동으로 늘었고, 창고로 허가가 났지만 축사로 사용하는 동까지 4동이 된다. 실제 건폐율도 8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K씨는 설명했다. K씨는 “농촌에서 먹고 살려다보니 사육마릿수를 한 두 마리 늘리며, 자연스럽게 축사도 증축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허가도 어렵다”며 “이런 농가가 한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K씨에 따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A면의 경우 70여농가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지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이들 농가의 대다수가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라 무허가 축사의 규제완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전국농축산인 1만여명 폭염속 생존권 사수 결의

34℃를 웃돌던 지난달 14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 EXCO부근 산격대교 아스팔트 위에 3,000명의 한우농가를 포함해 7,000명이 넘는 전국의 농축산인이 비싼 일손을 미루고, 무더위도 잊은 채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위협하는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중단과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한·중 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 촉구!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에서는 지난 11차 협상에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며 핵심쟁점을 좁혀가는 와중 7월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연내타결을 합의하는 등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농촌과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FTA 중단과 대

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농가들은 집회장소인 대구 북구 산격대교부터 FTA협상장인 엑스코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15일에는 협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 실효성 있는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마련

우리나라와 가깝고, 광활한 대지와 값싼 자본을



무기로 호시탐탐 국내 농산물시장을 넘보는 중국은 FTA 논의 이전부터 국내 농산물시장의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FTA 체결로 인해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국내 농업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이 자명해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며, 농산물 가격 보장 대책 수립 촉구, 농업보호·농가소득보장 등 주요 농정현안 관철을 요구했으며, 한우 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피해보전제도 현실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비대위는 한·중 FTA중단을 소리 높여 외치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국회까지 나서서 마련한 FTA 피해보전특별법에 수입기여도를 집어넣어 피해보전직불금을 삭감해 농가는 받으나마나 한 직불금을 받고 쫓겨





나뎠 폐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마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없어질 것이 자명

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㉔

한 만큼 농업·농촌의 모든 역량을 걸고 한·중 FTA를 막아내자”고 외쳤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축산 생산자단체들은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된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9% 적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농축산물 가격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

미니인터뷰

### 중국과 FTA, 규모·교역량 ‘메머드급’ 한우산업 붕괴 불보듯...반드시 중단돼야

한·중FTA 12차 협상이 진행되는데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중국과의 FTA는 규모나 교역량에서 다른 FTA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는 농축산업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도 없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한우농가뿐 아니라 전국의 농민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자존심임에도 그동안 FTA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 왔다. 수입기여도가 반영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받고 폐업을 한 농가가 부지기수며 지금도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우리 한우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없는 가운데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더 이상 한우를 키우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이와 별도로 한우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 “한우수급전망 모형으로 최소 2년이상 시장전망”

한우자조금, ‘한우 수급전망 모형’ 연구보고서 발표

한우자조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우수급전망 모형 구축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우수급전망 모형은 한우의 생산주기·생리적 특성·거세경제 변수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최소 2년 이상의 한우 시장전망이 가능하며, 수급정책 모형을 검증한 결과 사육두수 추정식의 오차평균이 1.12%로 매우 정교하다.

또 이 모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전망정보로는

△성별·연령별 사육두수 △암·수 도축두수 △암소·거세우 도매가격 △암·수 성우 산지가격 △암·수송아지 산지가격 등으로 앞으로 모형이 안정화되면 정책과 연계해 정책이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한우자조금은 “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선행 관측 정보는 현장조사정보 및 다른 관측정보들과 연계해 농가 경영의 합리적 조정과 선제적인 수급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산물 활용 TMR자가배합 순회교육

한우농가 사료비 절감 전문기술교육 지속 추진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TMR자가배합 제조기술 교육이 지난 18일 전남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한우협회와 국립축산과학원은 도별로 총 6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회당 40여명이 참석해 총 25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지난 6월 19일 경남 창녕에서 시작한 교육은 24일에는 충남 당진, 25일에는 경기 양평, 26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각각 실시됐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다시 충남 천안에서 교육이 있었으며 같은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전남 신안에서 교육을 끝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사육농가의 농식품부산물 활

용 TMR 자가배합 이용기술과 TMR자가 배합 전산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들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끊임없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며 “TMR 전산프로그램교육은 한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입기여도 명문화 폐지하라 농가 직불금 축소시켜 생존권 위협처사

## 한우협회 성명서...생산자단체·국회 반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에 수입기여도를 삽입해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한다는 것으로 생산자 단체는 물론 국회도 농가의 지급액을 축소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난하고 있다.



### 피해보전 차액 전부 지급 · 수입기여도 명문화 골자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출할 때 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고려하도록 산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전부로 해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되도록 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FTA 특별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사유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생산자단체의 정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삭제 △모든 FTA체결국 수입량 합계가 기준 수입량 합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직불금 산출을 위한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책정 △조정계수는 마라캐쉬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수입기여도의 정의와 반영이 명문화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농식품부, 수입기여도 고수...한우송아지 올해 31% 반영

농식품부는 FTA직불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기 위해선 수입기여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올해 직불금 대상인 한우 송아지의 수입기여도를 31%로 결정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우협회 소속농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입기여도 적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FTA 미체결 국가에서의 수입 증가, 국내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제외하는 게 FTA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 실장은 “조정계수 역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범위 내에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 의견수렴 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우협회, 수입기여도 문제없다는 정부 자기당착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기여도란 ‘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으며 피해보전직불금의 산출방법에 ‘수입기여도를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신설·추가됐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4일 ‘직불금 축소를 위한 FTA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연말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과 FTA를 타결하겠다는 발표 후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FTA특별법을 개정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수입기여도 명문화 폐지를 촉구했다.

한우농가가 수입기여도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부는 ‘수입기여도 반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스스로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FTA특별법에는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정계수를 곱하고, 산정된 직불금을 지급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불금 총액이 마라케쉬협정 허용 범위 내에 있음에도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설정해 감액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 직불금 축소 통한 농가 생존권 위협 비판

이와 관련해 국회도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직불금을 축소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 FTA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시장환경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경우 FTA직불금 대상이 아니며,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만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수입기여도를 FTA직불금에 적용해왔으나 수입기여도는 법률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입기여도는 어떠한 데이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난해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발동요건 강화도 문제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FTA체결국의 전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발동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어 FTA상대국의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발동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우 11.4



## 소비패턴, 원산지에서 가격중심으로 이동?

한우가격 회복세가 수입량 증가 초래  
와규 등 고급 수입쇠고기 '저가 공세'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대목에 조금이라도 높은 출하가격을 받으려는 한우농가의 마음도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쇠고기 수입량이 늘고 있어 생산농가는 물론 유통업체마저 긴장하고 있다.



### 소비자 원산지보다 가격 중시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의 쇠고기 구매 패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연간 구입액 기준으로 상위 20% 그룹과 하위 80% 그룹으로 나눠 쇠고기 구매 결정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물은 결과 상위 그룹 24.6%와 하위 그룹 28.9%가 가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변했다.

또한 같은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을 물은 결과 상위그룹 24.3%, 하위 그룹 22.1%만이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맛과 우수성에 인정받는 우리 한우를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믿음을 크게 흔들어놓는 결과다.

### 한우가격 회복되자 수입쇠고기 급증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행태는 유통시장에서도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여실히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수입된 쇠고기물량은 116,16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080톤보다 10,081톤, 9.5%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이 256,435톤으로 전년 253,522톤 대비 2,913톤 증가한데 그쳤던 것과 비교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쇠고기 수입량 증가의 원인으로 한우고기의 가격 강세를 지목했다. 지난해말부터 한우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도 “올해 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수입량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 축종에 걸쳐 수입물량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와규 등 고급쇠고기 한우시장 위협

이 같은 분위기는 유통현장에서도 드러났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유통업체들도 이를 반영해 쇠고기 수입물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 수입쇠고기 증가세가 길게는 올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쇠고기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고급 수입쇠고기가 늘고 있어 한우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쇠고기의 품질이 한우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와규 등 고급쇠고기로 평가되는 축산물의 수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형유통업체는 최근 한우 1등급 등심과 와규 등심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 판매가격은 각각 100g당 5,800원과 3,48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한우만의 차별화와 맞춤형 마케팅 필요

이처럼 수입쇠고기의 파상공세가 위협적인 만큼 한우시장을 사수하고, 한우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우만의 확고부동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은 물론 단순히 국민적인 정서나 애국심에 호소한 홍보전략을 지양하고 한우만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타겟 소비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한우 수출을 적극 추진해 한우산업의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과 동시에 한우산업에 대한 국민의 친화적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한우자조금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계층별 마케팅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한우고기 소비와 유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우고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한우소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오늘은 내가~ 한우CF 모델 !!

한우자조금, ‘한우CF모델 현장캐스팅’ 진행  
‘한우CF송’으로 알수록 기막힌 우리한우 이미지 전파



한우자조금은 한우CF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5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한우 CF 모델 현장 캐스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즉석에서 시민들의 접수를 받아 한우 CF 속 송소희양의 모습을 자신이 모델이 된 것처럼 연기해 세 명의 심사위원의 합격점을 받은 참가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했다. 또한 사전에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던 한우 CF 영상 제작 공모전 ‘기가 막힌 한우CF 패러디 열전’에서 올라온 수상작들을 상영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이 밖에도 전용 부스를 설치해 1년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구입 할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장터 ‘한우114 할인몰’에 대해 소개하고 객석에서는 즉석퀴즈 등 재미있는 이벤트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가 막힌 한우CF 모델 현장 캐스팅’은 남은 하반기 동안 방영되는 한우CF를 국민들이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받아들여 우리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담은 ‘한우송’을 전파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최

▲지난달 5일(토) 신촌 현대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한우CF 모델이 되기 위해 남성 참가자가 연기하고 있다.

하게 됐다.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기가 막힌 한우 CF모델 현장 캐스팅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우CF 속 ‘한우송’을 부각시킴은 물론 관리, 영양, 정성 등 알수록 기가 막힌 우리 한우를 남녀노소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우 CF 모델 현장 캐스팅’과 한우CF 패러디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드립니다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시군지역 소비홍보



7.27 황강레포초축제(경남 합천)



7.30~31 청자축제(전남 강진)



7.31~8.3 불빛축제(경북 포항)



8.1~3 칠옥수수축제(강원 홍천)



8.1~5 해양축제(전남 목포)



### 청소년 한우맛체험



7.3 구일고(서울)



7.10 강원 인제



7.15 안면중(충남 태안)



7.16 석교초(전남 진도)



7.17 인천외고

# 만병의 근원 '면역력' 음식으로 되찾자

한우와 함께 입맛도 잡고 면역력도 높이고~

(발췌 : 헬스조선)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 세균·곰팡이·바이러스는 우리 면역체계를 항상 공격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면역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30~40대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며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면역력도 함께 낮아진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숙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때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함께 챙겨 먹는 것이 큰 도움을 준다.

사실 면역력 증진을 돕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는 식품은 무궁무진하다. 실상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에 따르면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배추 등 채소는 조직과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암세포까지 죽인다고 한다. 고기류와 어류 역시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를 갖고 있어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 곡물 = 현미 · 보리

현미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된 대표적 식품이다. 당질, 미네랄, 비타



민, 단백질 등이 들었다.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철·칼륨·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유량이 백미보다 5배 높다. 비타민 B1은 당질의 소화흡수를 도와 피로를 없애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보리의 토코트리에놀 성분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보리에는 칼슘·섬유질·비타민 B가 흰쌀보다 10배 이상 들었다.



## ◇ 채소 = 마늘 · 브로콜리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정도 저하된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있다. 마



늘은 이렇게 면역에 중요한 체온을 높이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사를 증진시켜 발한과 이뇨작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도와 체내 에너지 대사를 활발히 하고,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한다.

브로콜리 역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항산화작용과 해독작용을 해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비타민C도 많이 들어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 ◇ 과일 = 토마토 · 귤

토마토에는 비타민 A·C와 미네랄, 칼



륨, 염산이 풍부하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 면역력을 높인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펙틴은 변비를 예방한다. 귤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많이 들었다. 또한 귤에 들어 있는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관의 노화와 출혈을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체온 저하를 막기도 한다.



## 면역력 높이는 한우건강 별미요리

### 한우월남쌈

부드러운 육단백질과 근내지방의 고소한 향미가 어우러지는 채끝살에 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컬러푸드 오색채소를 곁들인 후 라이스 페이퍼로 먹기 좋게 싸서 새콤달콤 소스에 찍어먹으면 원기회복은 물론 입맛까지 단번에 잡아주는 간편 다이어트식으로 손색이 없다. 한우월남쌈은 육류와 채소, 그리고 곡류까지 어우러진 균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 한우부추무침

육질이 연하고 풍미가 풍부한 등심은 특히 빈혈예방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대표적 강장식품인 부추를 매콤하게 무쳐 등심과 곁들이면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풍미가 여름철 식욕을 돋우는데 그만일 것이다. 특히 부추는 비타민 A·B·C와 카로틴, 철 등이 풍부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 면역강화 식품이다.



### 한우토마토스파게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며 혈당 저하와 암 예방에 탁월한 슈퍼푸드 토마토와 한우목심의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한우토마토스파게티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별미요리로 한우목심은 지방이 적고 젤라틴이 풍부해 피부미용을 생각하는 여성과 노인들의 영양식으로도 제격이다.



※ 이색 한우요리 레시피는 [만들어 Vol.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월까지 한우 도매가·송아지 가격 강세

## [가격동향]

- ◆ 송아지 : 송아지가 부족으로 수송아지 가격 강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KREI)  
\*가격전망 : 6~8월 6~7개월령 수송아지 240~270만원 전망
- ◆ 큰 소 : 쇠고기 공급감소와 할인행사로 6~8월 1등급 평균 도매가격 상승전망(KREI)  
\*가격전망 : 6~8월 한우 도매가격 14,000~16,000원 전망

## 7월 한우가격 및 출하동향

구분	평년 ('09~'13)	2013년		2014년		대비(%)			
		6월(A)	7월(B)	6월(C)	7월(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654,734	62,614	74,061	60,509	72,741	△3.4	△1.8	
경매마릿수(마리)		246,000	32,548	39,309	31,943	41,684	△1.9	6.0	
도매시장 경락가격(원/kg) (수취가격, 천원/마리)	평균	14,167	11,790	12,039	14,145	14,474	20.0	20.2	
	거세우	15,256	13,299	13,575	15,343	15,317	15.4	12.8	
	비거세우	10,913	9,360	9,142	11,056	11,277	18.1	23.4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마리)	암소	4,442	3,190	3,202	4,216	4,420	32.2	38.0	
	송아지	암	1,983	1,039	1,010	1,789	1,982	72.2	96.2
		수	2,124	1,811	1,827	2,642	2,756	45.9	50.8
불고기(1등급/kg)		33,287	29,810	29,300	33,860	34,420	13.6	17.5	
등심(1등급/kg)		64,477	59,480	58,940	64,220	64,160	8.0	8.9	

\* '13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5,406천원/600kg, 통계청), 경영비(4,434천원/600kg, 통계청)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합제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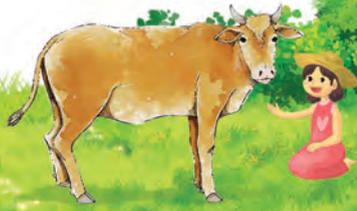
## 한우농가 소득 추정('14. 7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7,823	6,384	4,434	1,950
1+	15,926	5,705		1,271
1	14,616	5,235		801
2	12,553	4,496		62
3	10,789	3,865		△569

\* 경영비: '13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434천원/600kg, 통계청)

# 소는 나의 친구이자 영원한 식구

한승자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승부농장)



승(승리)부(부자)농장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간판을 가지고 소와 가까이 지내 온지 30년넘게 생활하고 있다. 옛날부터 소는 한 식구나 다름없이 여기며 기르는 게 생활화되어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소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왜 없었겠는가. 소값 파동을 겪으면서 한없이 올면서도 인내해야 했고, 집채만 한 큰 황소가 쓰러질 때는 심장박동이 멈춘 듯한 쓰러졌던 고통도 이겨내야 했었다.

집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어 아침, 저녁 두차례 왕래를 했었는데 2014년 구정 후 소를 팔고 몇 개월 우사가 비어 있었다. 몇 개월간 아침에는 방에서 뒹굴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채

조를 하며 시간을 때우며 지냈다. 물론 다른 농사로 한가롭진 않았지만 거대한 식구들이 없어지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궁리한 결과 식구들을 다시 들여와야겠다는 정답을 얻을 수 있었다. '소라는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기도, 뺏어갈 수도 있는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소를 키우는 조그마한 농장주로서 가격차이보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소중한 식구라는 존재 가치로 나의 우사에 몇 마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득 채워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농장주부가 되어 푸근함과 마음가득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



## 애독자 퀴즈

FMD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 모두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절실합니다.

이번달 애독자 퀴즈입니다. FMD 접종량은 1회에 몇 ml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4~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7-878 (독자코너 투고용 이메일 : 025251053@hanmail.net)

### 당첨자

조영민(경기 의정부시), 추옥녀(강원 정선군), 최연수(대전 중구), 이정순(전북 남원시), 마석모(전남 강진군), 최철진(경남 창원군)

### 독자코너 당선자

한승자(경북 상주시)

# 왜 이렇게 맛있는거야?

# 한우니까!



한우는 고기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지글지글~ 한우가 익어가는 맛있는 소리 들리세요?  
우리 가족 식탁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한우**입니다!